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서 인기



완도군은 지난 15일 완도농협연합미곡처리장(RPC)에서 봉진문 완도부군수,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남 완도농협조합장 및 읍면 농협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 러시아 4차 수출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엔 수출되는 완도자연그대로미

는 18톤으로 부산항에서 선적되어, 일주일 뒤 러시아 사할린주의 쌀 시장과 블라디보스토크 마트 등에 풀리게 된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2018년도에 할랄 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미국, 2020년도에는 GAP 인증을 받아 러시아가

4차 수출 상차식...2025년까지 700톤 수출 '한국에서 온 최고 품질 쌀' 인정...20억 규모

지 수출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바이어 및 현지 주민들로부터 '한국에서 온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으면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700톤, 약 20억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에서는 최고 품질 쌀 수출을 위해 '새청무' 신품종을 도입하였으며, 국내 소비자들에게 밥맛이 좋은 쌀로 알려져 있고, 농업인에게는 생산성 및 재배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미네랄이 풍부한 해풍 등 완도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그대로 농법'을 실천하여 생산한

쌀로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시범 사업 및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하고 있다.

한편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 품질 쌀 단지' 342ha 전 면적에 우수 농산물 인증인 GAP을 획득하여 안전한 농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 길에 오르고 있는 것은 품질 및 안정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 해양치유산업에 제공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군역점 사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입체간판으로 신선한 셋골 변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금강산 등산로 입구 응벽 눈길

해남군민들의 휴식터 금강산 등산로 입구에 입체 간판이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남군은 '전남도 좋은 경관 만들기' 최우수상 수상사업비를 활용해 해남읍 구교리 응벽에 입체간판을 조성했다. 입체간판은 '구교의 자연, 그 속에 동화된 우리'를 주제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소통, 소통의 씨앗이 세상으로 비산하는 의미를 형상화했다.

간판이 설치된 위치는 해남 금강산 등산로 초입이자 구교마을의 중심부로 많은 주민과 등산객의 왕래가 잦은 곳이지만 미관을 해치는 콘크리트 인화 주민들의 환경개선 요청이 제기돼 왔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

소하는 한편 등산로 입구의 밝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내 처음으로 입체간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해남이 고향인 유희관, 이철규 두 명의 작가가 작품을 구상했으며, 작품구성부터 설치까지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호응을 얻었다.

정두원 구교마을 이장은 "입체간판이 설치되면서 구교리 옛이름인 셋골처럼 새로운 마을로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주민들이 참여해 의미있는 작품을 설치해 더욱 뜻깊은 만큼 구교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야간 조명 확대 설치...밝은 거리 조성 '박차'

군민들 안전 확보·불거리 제공 통해 상가 활성화 기대

진도군이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읍·면 소재지 경관 조명과 주요 도로 가로등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15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천 산책로를 비롯해 아리랑거리, 남촌교, 버스승강장, 읍·면 소재지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 완료했다.

앞으로 주민 만족도와 의견 청취 후 진도군 관리 건물과 주요 장소에

야간조명을 확대 설치해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관조명 설치하는 밝은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밝아진 도로 환경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거리 제공을 통한 집체된 상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월 현재 밝은 거리 사업은 진도

읍 조급시장~고작골 마을, 장구포~송가인 마을 등의 중점 설치지역에 설치를 완료했다.

또 국도변 LED 조명 교체와 읍·면 주요 도로의 위험구역에 가로등 설치공사도 함께 완료했다.

군은 앞으로도 중점 설치 지역과 주요 도로를 추가로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도면 섬 지역의 가로등을 고장

이 적고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전면 교체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고장 수리 지연 민원을 해소했으며, 전력사정이 좋지 않은 섬 지역의 에너지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관계자는 "주요 도로와 마을 입구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하고 읍·면 소재지와 주요 관광지에 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하는 등 밝은 거리 조성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강진군,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3대 물놀이장 휴장 결정

V-랜드·석문공원 물놀이장은 그늘·데크 등 편의시설 이용가능

강진군은 최근 코로나19 델타바이러스 확산 추세로 매년 7~8월 개장해 왔던 3대 물놀이장(강진읍 V랜드, 도암면 석문공원, 칠량면 조당림)을 휴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물놀이장 주 이용대상이 백신 미접종자인 영유아로 물놀이 중 마스크를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2m)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무증상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단 감염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놀이장 휴장을 결정했지만 2m이상 상호 거리를 유지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전제로 초당림 물



놀이장을 제외한 V랜드, 석문공원 물놀이장 주변의 그늘과 데크 등 편의시설은 자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 집중호우 침수 농업기계 무상점검 수리 및 관리요령 안내

이들간 총 30여 대 수리 완료

장흥군은 지난 5일부터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가장 큰 대덕읍 덕촌마을 일원에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점검과 관리요령 안내를 지난 13일부터 14일째 이들간 실시했다.

대덕읍 덕촌마을 박종철 이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리 일정을 안내했으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요원들이 현장을 방문, 기종별로 꼼꼼히 점검을

실시하여 간단한 소모품들은 대부분 무상으로 수리한 결과 2일간 총 30여대의 기계를 수리 완료했다. 또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장마철 농업기계가 침수됐을 때 관리요령 등을 추가로 안내했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크나큰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농업기계 무상수리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장마철 침수나 토사로 인한 고장이 의심될 경우, 절대 시



동을 걸지 말고 오염물을 제거한 다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추가 고장을 예방

하는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